

# 니르바나 실내악단 음악포교 '바쁜 4월'

## 대전-대구-서울 봉축·노숙가정 돕기 4차례 공연

느루른 외국인 지휘자와 갯빛 송복의 스님 소프라노가 한 무대에 서고, 현악과 피아노, 장구와 대금이 한데 어우러지고, 손가락 장애를 딛고 일어난 소녀 피아니스트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출연하는 독특한 음악회가 열린다.

이 모든 것은 교계 유일의 니르바나 실내악단(단장 강형진)이 초파일을 한 달여 앞두고 정기공연과 봉축기념음악회,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준비한 것이다.

99년 창단 이후 불교와 서양음악의 만남, 새 시대에 걸맞는 창작음악으로서의 불교음악 알리기 위해 시작한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지난해 평균 월 25회의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치며, 음악을 통한 포교활동에 매진해 왔다.

올해 공연은 4월 1일 동화사 승가대학 주최로 대전 대덕과학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봉축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 4월 8일에는 대구 대덕문화전당에서 15일에는 서울 예숙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또 4월 23일에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노숙가정을 위



◇ 지난해 월평균 25회의 연주회를 가져온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올해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음악포교활동에 나선다.

한 자선음악회'를 펼친다.

이번 연주에는 동유럽의 명 지휘자 안드레이 안드레예프(마케도니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초청해 모시니의 소나타, 비발디의 사계, 드보르작의 세레나데 등을 연주하고, 소프라노 정영스님, 테너 윤승호씨, 젊은 불자 중창단 LMB 싱어즈 등이 참가해 동서양과 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다. 특히 매년 정기연주회 때마다 우리 전통음악에 기초한 창작음악을 선보여 온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이번 연주에서도 피아노와 대금, 피리, 25현 가야금 등이 어우러진 창작곡 '일승월항(日昇月恒)'을 연주할 예정이다.

봉축기념음악회와 정기연주회에 이어 열리는 '노숙가정'을 위한 자선연주회에는 선천성 손가락 기형을 딛고,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서울 주몽중학교 3학년 이희아양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단장 강형진씨는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교계에서 정통 실내악단을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불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가운데 안목이 높아지고 그것이 다시 수준 높은 불교문화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ejeje@buddhapia.com)



### 통도사 괘불탱 특별전

## 처음공개하는 '연꽃 든 부처님'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스님)이 31일부터 6개월 동안 박물관 중앙홀에서 제5회 괘불탱(掛佛堂)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에서 공개되는 괘불탱은 통도사에서 1767년에 제작된 것으로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이다. 이 괘불에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두촌, 성징 등 11명이 그렸으며 동래 지역 신도들의 시주로 제작된 것이다.

이 괘불탱은 삼베에 채색으로 그려진 높이 12m, 너비 5m에 달하는 대형이다. 석가모니부처님과 제자들 중심으로 그려진 기존의 괘불과 달리, 미소 띤 얼굴에 두손으로 연꽃을 든 석가모니부처님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독특한 괘불이다.

박물관측은 이번 특별전과 관련해 오는 31일 괘불탱을 범종각으로 옮기는 이연의식(移蓮儀式)을 비롯해 나비춤, 바라춤 등 불교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의식을 재현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0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가 끝나는 대로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 스님들 전시회 잇달아

#### 상목 스님 '갈망에 담은...'

봄을 맞은 화랑기에 스님들의 전시회가 잇따라 열린다.

화가 상목스님이 4월 4일부터 10일까지인 사동 덕원갤러리에서 '갈망에 담은 산승이야기-비구노사나전'을 연다. 지리산자락 토굴에서 10여년 동안 머물며 구도의 방편으로 그려온 그림들을 선보여 온 스님의 11번째 개인전이다. 02723-7771



◇ 상목스님 작 '기도'

#### 정각·묘각 스님 불화전

정각 묘각스님의 '죽거노인' 등 불화 및 서화전은 4월 4일-10일까지 안국동 백상기념관에서 열린다. '부처님 고행도' '달마대사 법상도' 등 묘각스님의 불화와 정각스님의 '반야심경 병풍' '자연 연옥 다라니경' 등 5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서울 전시에는 5월 4일-16일에는 부산 국제신문 제2전시관에서도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02705-5308

#### 설봉 스님 '마음으로 보는...'

도예가 설봉스님의 '마음으로 보는 도예전'이 4월 3일-12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새로 개발한 유약을 이용한 백자를 선보인다. 백자에 모시, 옥양목, 삼베, 명주, 광목 등 우리 옛 옷감의 빛깔을 그대로 재현했다. 0511500-5385



◇ 설봉스님 작 '별빛 내리는 바다'

## 동화 '오세암'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

설악산 만경대 오세암자의 전설을 다룬 '오세암'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

마교21에서 기획, 제작중인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정채봉의 동화 오세암을 원작으로 오는 11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오세암'은 다섯살배기 고아 소년 김순이와 알 못보는 누이감이 설봉스님의 절에서 지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폭설로 인해 김순이가 암자에 갇혀 지내다 한없이 맑고 깨끗한 동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염송한 끝에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배

경속에 천진무구한 어린 소년과 스님과의 우정,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독특한 동양적 캐릭터의 이미지로 그려내게 된다.

마교21은 "오세암은 종교를 초월해 어린이와 성인들에게까지 폭넓게 사랑 받을 있는 뛰어난 작품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면서 "불교 단체와 문화단체 또 국내 필름 페스티벌과 해외 필름 마켓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하철을 탔다. 맞은편 좌석에는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그러다 시선을 돌리는 순간, 생각에 잠긴 듯 유난히 해맑은 얼굴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우연히 마주친 처음 보는 저 얼굴을 이 순간만 지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뭔가 허전하면서도 한편 '웃기만 스쳐도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라는 신비감도 느껴졌다. 그때 미국 출신으로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활동한 에즈라 파운드(1884-1972)의 시 '지하철역에서'가 떠올랐다.

군중 속에서 마주친 얼굴  
젖은 검은 가지에 핀 빛꽃

이 시가 탄생한 경위는 이렇다. 늦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시인이 파리의 콩코르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침 열차가 도착했는지 군중이 우르르 물러 나왔다. 우뚝한 날씨에 모두들 외투 깃을 세우고 바삐 스쳐 지나가는데, 문득 그 사람들 틈에서 어느 여인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아주 짧았지만, 너무나 인상적인 순간이었다. 시인은 그 이미지를 처음엔 30행의 긴 시로 적어보았지만, 어딘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6개월 뒤 시로 줄여보아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뒤 동양의 단시를 접하면서 마침내 흡족한, 단 두 줄의 시가 탄생했다.

#### 파운드의 '지하철역에서'

##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신비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작은 인연을 승화시킨 이 시는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이미지를 시운동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다. 간결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통해 심상(心象)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한시(漢詩)들을 번역하면서 파운드는 동양적 예술론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영미 최초의 자유시, 구어시(口語詩) 운동인 이미지를 제창하게 된 것이다.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의 사람이 문득 빛나며 나의 내면에 잠든 감성을 깨우는 마술을 부릴 때가 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미지가 탄생한다. 이 시에는, 비록 짧지만 두 구조가 중첩(superposition)되어 있다. 첫 줄은 사실을 기록하고, 둘째 줄은 빛꽃의 상징이 대비되고 있다. 이 중첩 구조에 의해 어느 여인의 얼굴에 관한 절묘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오래 전 한때, 한국인의 '얼굴'을 찾는 적이 있었다. 가장 한국인다운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하여, 길을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어떤 때에는 마주친 어느 얼굴에서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까지 연상되어 내심으로 놀란 적도 있었다. 그 뒤 시인 윤동주의 얼굴이나 '합복강은 흐른다'를 쓴 이미지, 혹은 경봉 스님의 얼굴에서 한국인다운 이미지의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인연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선 이 자리를 들여다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기를 마시며 마주친다는 사실은 더욱더 큰 신비가 아닐 수 없다.

■문학평론가

#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에 전혀 발열이 없음.
  - 주문시 법당 일년등용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 전화 : (031) 791-8871

-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 ◆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마산,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주)TG 반도체

## 새천년의 발원 - 손 불국토를 장엄 하였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용가동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겉이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안국임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팔모주름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특수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